

2026년 8월 31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잭슨홀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것들

이번 주 코스피는 1) 지난 금요일 잭슨홀 워시 의장 연설 여파, 2) 미국 10년물, 30년물 등 장기물 금리 향방, 3) 미국 8월 비농업 고용 및 8월 ISM 제조업 PMI, 4) 브로드컴, 델 등 미국 테크주 실적, 5) 한국 8월 수출 이후 반도체주 수급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7,000pt 진입을 재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6,400~7,200pt).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의장은 7월 물가 지표 둔화에도 기초적인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에,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향해 빠르게 내려 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연준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입장을 강조. 하지만 금요일 미국 3대 지수의 하락폭이 제한된 점을 미루어 보아,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매파적 쇼크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 잭슨홀 이후 2년물 등 단기금리가 상승한 반면, 10년, 30년물 등 장기금리는 강보합 수준에 그치는 등 최근 증시 불안 요인이었던 장기 금리의 급등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결국 워시 의장 발언은 물가 안정, 완전 고용이라는 연준의 이중 책무를 원론적으로 강조한 성격이 짙은 만큼, 기존처럼 인플레이션, 고용 지표의 중요성을 계속 높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28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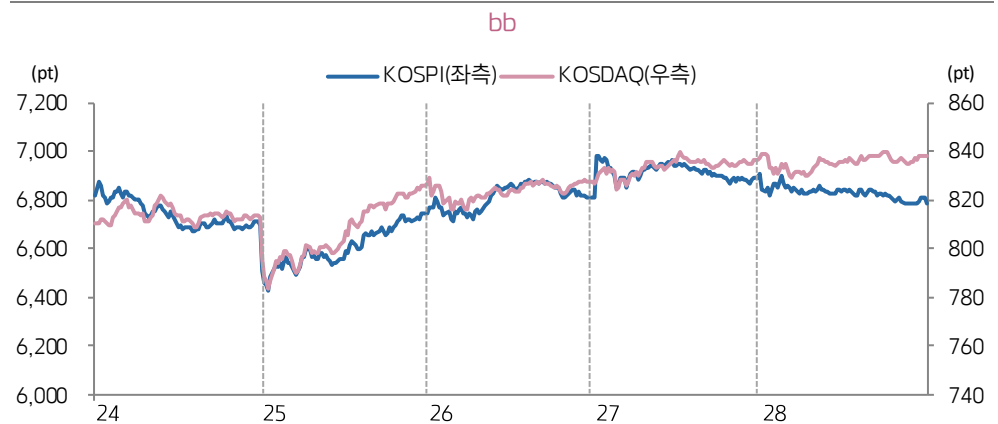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호조와 반도체주 반등에도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잭슨홀 경계감에 코스피는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2차전지·바이오 중심 순환매에 힘입어 상승 마감(KOSPI - 1.79%, KOSDAQ +4.55%)

주 초반에는 미국 장기금리 급등과 관세 갈등 우려가 겹치며 투자심리가 위축돼 코스피가 3%대 하락하며 6,500선까지 회한. 이후 미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돼 반등. 주 중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 추정 수급이 유입되고 외국인 매도세도 둔화되면서 6,800선을 회복. 이어 한국은행 금통위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업황 기대가 재차 부각되며 상승 흐름이 이어짐. 다만 주 후반에는 잭슨홀 연설을 앞둔 경계감이 확대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반도체·바이오 업종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코스피가 2% 가까이 하락해 6,700대로 마감. 반면 코스닥은 2차전지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대형주에서 이탈한 자금이 유입되며 상대적 강세를 보임.

대외적으로는 미국 장기금리와 관세 불확실성, 국내외 통화정책 이벤트와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방향을 좌우함. 엔비디아 호실적과 AI 투자 확대 기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며 주중 코스피 반등을 이끌었으나,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잭슨홀을 앞둔 통화정책 경계감이 외국인·기관의 위험자산 선호를 제한함. 특히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코스닥은 코스피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2차전지·바이오 등 성장주로 순환매가 확산됨.

업종별로 건설(+15.6%), 기계/장비(+12.91%), 금속(+9.13%), 일반서비스(+9.02%), 화학(+6.45%)이 상대적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전자(-4.42%), 제조(-2.69%), 유통(-1.97%), 보험(-0.87%)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8조 3,171억 원)은 건설(-1,841억원), 통신(-1,236억원), 일반서비스(-1,077억원), IT서비스(-551억원)순으로 순매도, 기관(-3,615억 원)은 유통(-312억원), 의료/정밀기기(-77억원), 종이/목재(+6억원), 섬유/의류(+6억원)순으로 순매도.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2026년 8월 31일

KIWOOM WEEKLY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8월 31 일	월	중국	제조업 PMI	8 월	49.5	49.2
			비제조업 PMI	8 월	49.5	49.0
		미국	달러스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8 월	1.6	1.3
	한국	산업생산 (MoM)	7 월	-0.5%	6.4%	
		소매판매 (MoM)	7 월	-	2.7%	
	지수	MSCI 분기 리밸런싱		-	-	
	행사	G20 재무부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	-	
	휴장	영국(Bank Holiday)		-	-	
9월 1 일	화	한국	수출 (YoY)	8 월	62.9%	62.8%
			수입 (YoY)	8 월	25.3%	26.5%
			무역수지	8 월	-	\$30.4B
	중국	레이팅독 제조업 PMI	8 월	50.7	50.9	
	EU	CPI (YoY, 잠정치)	8 월	3.2%	2.9%	
	미국	ISM 제조업 PMI	8 월	55.2	55.6	
		JOLTS 구인건수	7 월	7,380K	7,359K	
	9월 2 일	수	한국	CPI (YoY)	8 월	3.1%
			CPI (MoM)		0.2%	-0.2%
미국		ADP 취업자 변동 수	8 월	48K	44K	
		제조업 수주 (MoM)	7 월	0.1%	-0.3%	
실적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델 테크놀로지		-	-	
9월 3 일		목	중국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8 월	-
	미국		ISM 서비스업 PMI	8 월	54.4	54.1
			무역수지	7 월	-71.5B	-73.3B
	실적	브로드컴, 스노우플레이크		-	-	
	공개	연준 베이지북(오전 3 시)		-	-	
9월 4 일	금	미국	비농업고용지수	8 월	55K	-23K
			실업률	8 월	4.1%	4.1%
			시간당 평균임금 (MoM)	8 월	0.3%	0.1%
	한국	경상수지	7 월	-	\$49.73B	
	실적	롤루레몬		-	-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코스피는 1) 지난 금요일 잭슨홀 결과, 2) 미국 10년물, 30년물 등 장기물 금리 향방, 3) 미국 8월 비농업 고용 및 8월 ISM 제조업 PMI, 4) 브로드컴, 델 등 미국 테크주 실적, 5) 한국 8월 수출 이후 반도체주 수급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7,000pt 진입을 재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6,400~7,200pt).

28일(금) 미국 증시는 8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4.0% vs 컨센 4.3%)에도,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관세 노이즈 속 케빈 워시 의장의 매파적인 연설 여파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약세 마감(다우 -0.02%, S&P500 -0.25%, 나스닥 -0.5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47%).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의장은 7월 물가 지표 둔화에도 기초적인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 또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향해 빠르게 내려 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연준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입장을 강조. 이 같은 발언들은 매파적으로 해석됐으며, 그 여파로 9월 인상 확률이 기존 35%대에서 59%대로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는 9월 인상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금요일 미국 3대 지수의 하락폭이 제한된 점을 미루어 보아, 시장의 감당 가능 범위를 넘어선 쇼크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 잭슨홀 이후 2년물 등 단기금리가 상승한 반면, 10년, 30년물 등 장기금리는 강보합 수준에 그치는 등 최근 증시 불안 요인이었던 장기 금리의 급등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결국 워시 의장 발언은 물가 안정, 완전 고용이라는 연준의 이중 책무를 원론적으로 강조한 성격이 짙은 만큼, 기존처럼 인플레이션, 고용 지표의 중요성을 계속 높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

이번 주에도 주요 경제 지표들이 대기 중이며, 이 중 4일(금) 8월 미국 비농업 고용 결과의 영향력이 여타 지표들보다 높을 전망. 이번 고용은 워시 의장이 제시한 '고용 안정 + 인플레이션 대응 우선'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지표라는 점에서도 중요.

지난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마이너스(-2.3만건)를 기록했던 가운데, 8월 신규고용 컨센서스는 +5.5만건으로 지난달에 비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형성. 따라서, 8월 고용이 예상 수준의 회복세에 그치고 임금 상승률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다면, 9월 인상 리스크가 확대되거나 장기금리가 재차 급등하면서 증시 불안을 초래할 여지는 제한적일 전망.

1일(화) 예정된 한국의 8월 수출은 반도체주를 포함한 국내 증시 방향성과 직결될 이벤트. 현재 8월 수출 컨센서스(YoY +62.9% vs 7월 +62.8%)상 7월과 유사한 60%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형성된 가운데, 주도주인 반도체 수출(6월 +199.5% -> 7월 +178.8%)이 100%대 중후반의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 지가 중요.

이번 수출은 지난주 국내 반도체주가 주주환원,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등의 여러 호재에도 약세를 보였다는 점과 연계해서 접근할 필요. 최근 반도체주 약세는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높아진 기대치와 수급 이슈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8월 수출 호조 확인 이후 반도체주의 주가와 수급 변화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

증시 내에서는 브로드컴 실적(3일 새벽)이 메인 이벤트. 지난주 엔비디아가 2분기 호실적 및 가이던스 상향을 통해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준 것처럼, 브로드컴도 긍정

2026년 8월 31일

KIWOOM WEEKLY

적인 가이드언스를 제시할 경우, AI 수요가 ASIC, 네트워크 등 AI 인프라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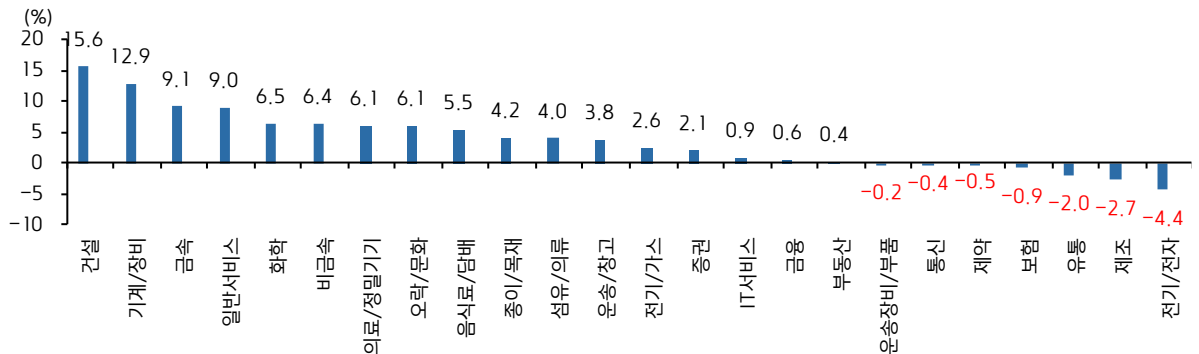
동시에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AI 성장 내러티브를 중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AI 투자가 얼마나 빠르게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전환되는지를 이전보다 높은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상gi해볼 필요. 결국, 브로드컴 실적에서는 향후 분기 AI 매출 가이드언스 변화와 매출 인식 속도가 중요할 것이며, 그 결과가 미국 시뿐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주중 대응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6,788.88	-1.8	-1.8	12.7	61.1
대형주	7,402.70	-2.0	-2.4	12.6	69.1
중형주	4,184.32	1.1	6.4	14.9	12.4
소형주	2,428.28	1.2	4.3	11.9	-3.5
코스피 200	1,065.70	-2.1	-2.8	12.7	75.9
코스닥	838.41	0.1	4.6	18.8	-9.4
대형주	2,084.58	-0.2	4.6	22.1	-7.4
중형주	855.86	0.4	5.6	18.0	-4.9
소형주	2,345.41	0.6	3.5	12.4	-8.9
코스닥 150	1,458.62	-0.1	4.7	22.5	-5.7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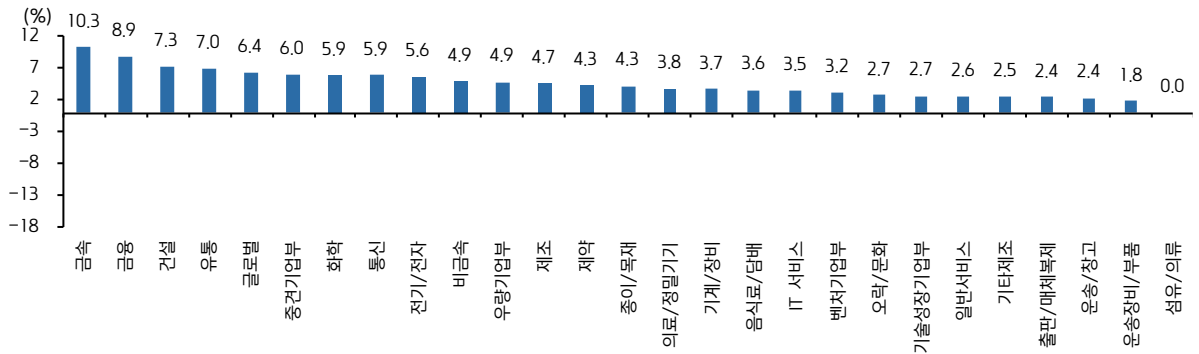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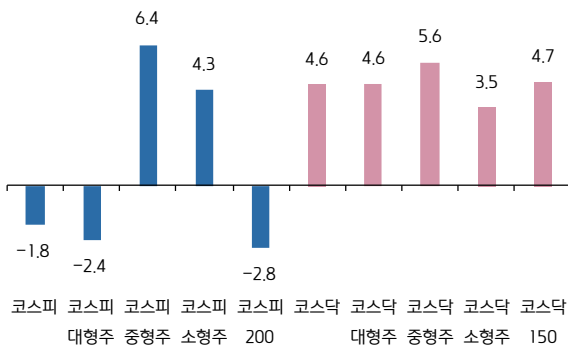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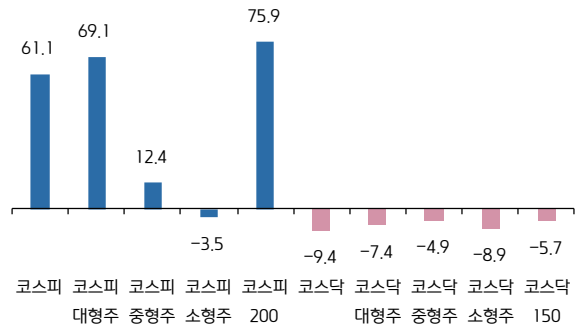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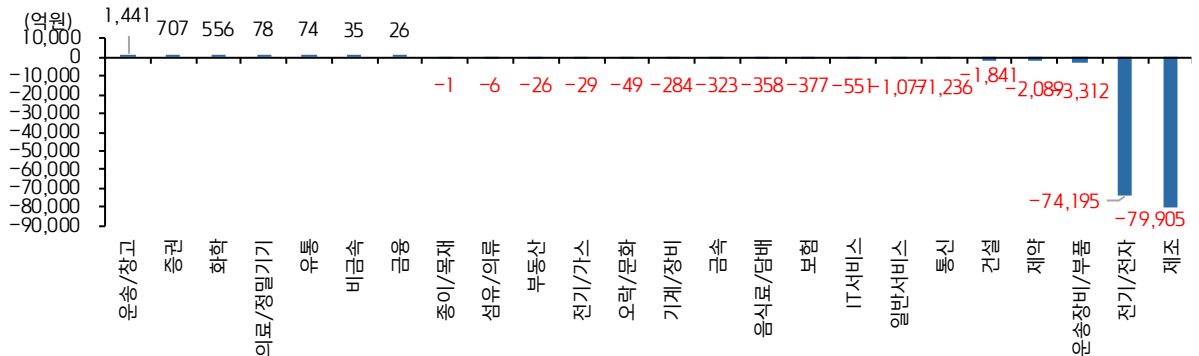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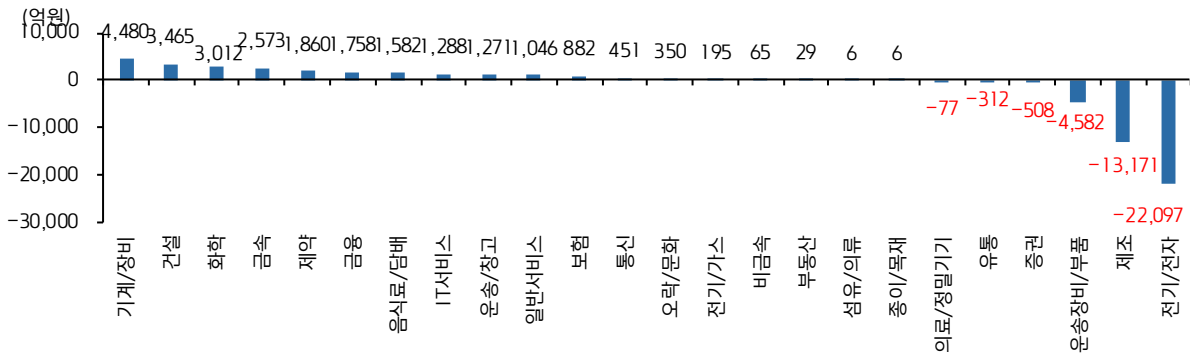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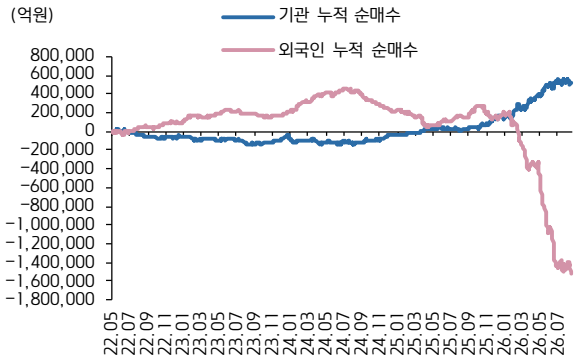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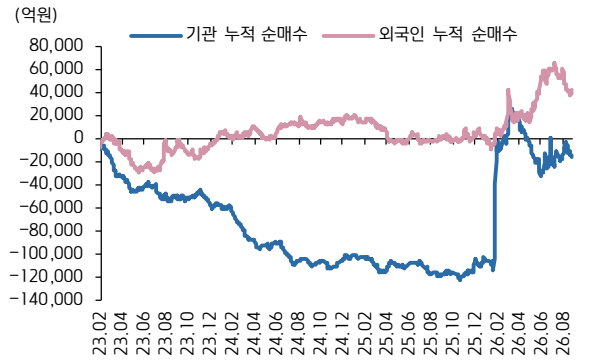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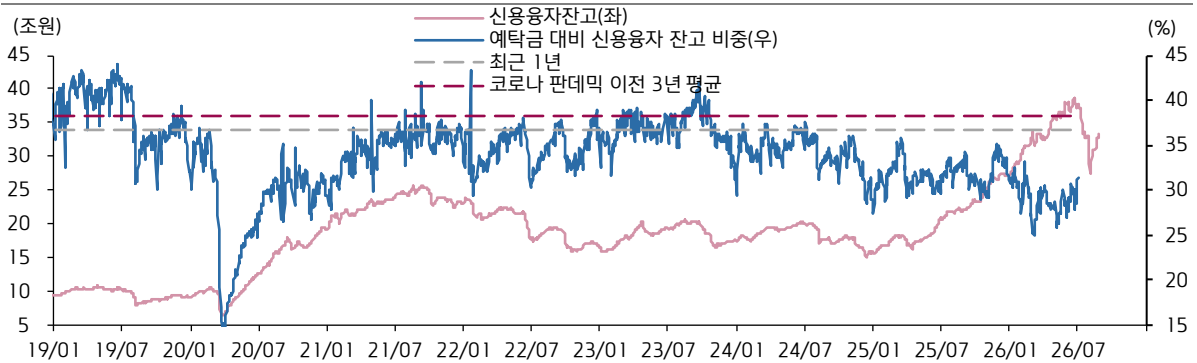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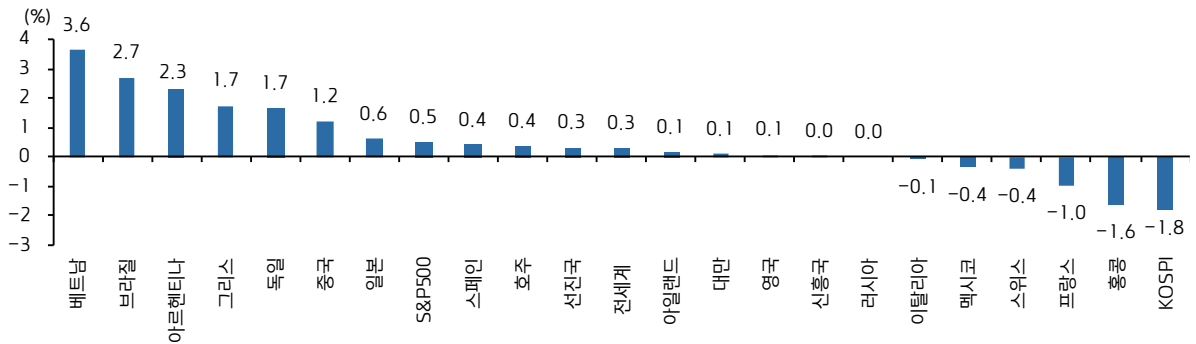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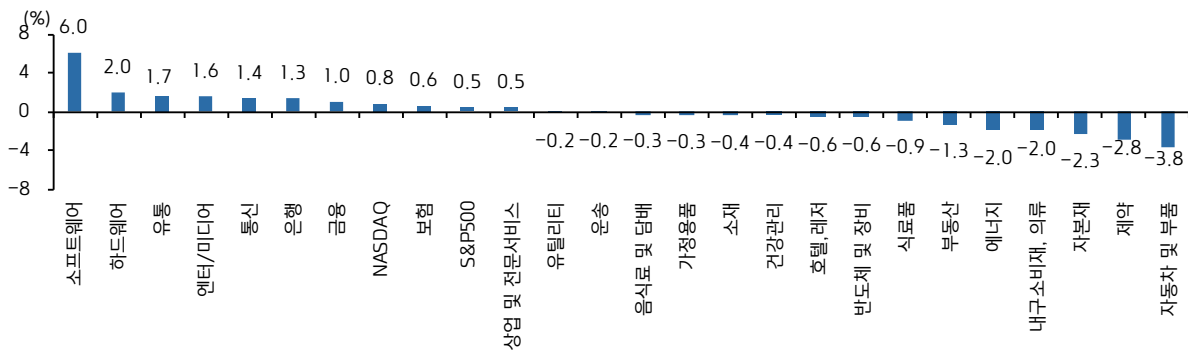
KIWOOM WEEKLY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